

# FAPA大會에參加하고

본연합회 이사  
약학박사 洪 文 和

## 1. 緒 論

1970年 11月 15日부터 同 21日까지의 1週間에 걸쳐서 FAPA大會가 빈올빈의 마닐라에서 열렸다.

FAPA大會라고 함은 第4次 아세아 藥師會 聯盟總會(The 4th General Assembly of the Federation of As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s) 및 第3次 아세아 藥學會議(Third Asian Congress of Pharmaceutical Sciences)를 합쳐서 略稱한것이다.

FAPA大會야 말로 2年마다 한번씩 열리는 아세아地域의 최대의 藥學의 盛典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35名(그中 2名은 現地參加)이라는 大規模의 代表團을 파견 참가시킴으로써 韓國藥學의 實力을 아세아 各國에 浮刻시켜 多大한 成果를 挙우었다.

學會參加團으로서는 별로 類例가 많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代表團을 파견시킬수 있었던 것은 1) 정부당국에서 FAPA大會의 重要性을 인정하여 준것과 2) 이와같은 인식을 가능케하는데는 大韓藥師會長 閔寬植博士와 代表團長 許鈴博士의 盡力이켰으며 3) 1968年 서울에서 우리나라가 主管國이 되어 開催했던 前次大會에 多數한 外國代表團이 參加해준데 對한 報答의 意義가 있다는 것과 4) 本部副會長인 趙誠虎, 洪文和 兩人이 常任理事인것을 비롯하여 道합 7名의 理事를 우리나라가 保有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이는 27名의 이사회구성 人員數中에서 어느 參加國보다도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 이번 總會가 4年마다의 任員改選의 기회라는 것등의 與件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수 있

겠다.

마닐라大會의 「슬로건」인 <藥學을 통한 아세아의 團結>(Asian Unity Through Pharmacy)이라는 드높은 共同 理念아래 1000名臺의 아세아 藥師가 意思疎通과 決議의 殿堂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亞洲地域의 藥學發展을 위하여 큰 意義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2. FAPA의 沿革

藥學社會가 國際間的 紐帶와 交流를 위하여 첫 國際會議을 연것은 1865年 독일에서 비롯된다.

그後 1910年에 이르기까지 定期的으로 나라를 바꾸어 이 國際會議가 개최되었지만 이 회의의 성격은 純粹한 學會活動에 始終하였던 것이다.

學問活動과 아울러 藥師라는 專門職의 國際間 紐帶도 또한 緊要함을 인식하고 兩者를 兼한 藥學組織이 和蘭의 藥師 schoepp博士에 의하여 提唱되어 드디어 1912年 「世界藥學聯盟」(Federation Internationale Pharmaceutique FIP)이 發足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藥學組織의 亞洲地域에서의 必要性을 痛感한 비올빈을 비롯한 몇몇 나라가 1964年 4月 22, 23兩日에 걸쳐서 FAPA(Federation of Asian Pharmaceutical Associations) 創立總會를 마닐라 에서 열었다.

第2次總會는 日本이 主管國이 되어 1966年 8月 15日부터 19日까지 5日間에 걸쳐서 東京에서 開催되었다. 第2次總會때부터 아세아藥學會議를 並行시켜 開催하기로 하여 FAPA大會가 專門職會議인 동시에 學會인 二重性을 兼全하게 하였다. 이로써 學問的 理論과 專門職的 實踐이 渾然一體가 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創立總會에는 읍서버단을 參加시켰으나 第2次 大會에는 당시 大韓藥師會長이던 趙誠虎씨를 團長으로 하는 4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참가시켜 各部會에서의 토의 및 學術發表에 있어서 확고한 실적을 남기는 동시에 次期大會를 大韓民國에 誘致하기에 이른 것이다.

第3次 大會는 서울에서 1968年 9月 16일부터 21일까지 盛大하게 開催되었던 기억은 아직도 새로운바 있다. 當時 正會員國인 9個國에서 正式대표단을 보내오는 동시에 準會員國인 濠洲 및 非會員國 8個國에서 읍서버를 參加시키는등 도합 1,228名의 亞洲地域의 藥師가 參集한 메르드大會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 우리가 내건 슬로건은 <아세아 發展을 爲한 藥學> (Pharmace for Asian Progress)이 었다.

FAPA가 지니고 있는 역사는 時間的으로는 비록 아직 日淺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亞洲의 友邦諸國의 發展이 최근 눈부신 發展인 것과 마찬가지로 FAPA역시 확고 부동한 기반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前進軌道 위에 올라섰다고 할수있다.

더우기 마닐라에서 誕生된 FAPA가 5年만에 다시 출생지로 되돌아가서 大會를 갖었다고 하는 점에 今次 大會의 意義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FAPA는 基礎段階를 넘어서서 마야흐로 跳躍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現在 會員國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비올빈, 홍콩, 태국, 中華民國, 日本, 越南,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싱가포르의 11個國이며 準會員國으로는 濠洲가 있다.

아직 正式으로 大會記錄이 發刊되지 않았기때문에 精確한 통계는 들수 없으나 참가 인원수는 우리나라 때와 비교하여 막상막하가 아닐까 추측된다.

### 3. 大會日程

11月 15日(日) 아침 8時부터 등록개시

11月 16日(月) 7:30—리갈紀念碑에 獻花  
(理事會멤버)

8:00—등록계속

10:00—상임이사회

12:00—전체이사회

11月 17日(火)

8:00—등록계속

9:00—開會式

10:30~오후 6:00—第3次 아세아 藥學會  
議 오후 6:00—친선다과회

11月 18日(水)

8:00—등록

9:00—各部會會議

1. 藥典部會

2. 病院藥局部會

3. 交易部會

4. 開設藥局部會

오후 2:00—部會계속

1. 藥事制度部會

2. 藥學教育部會

3. 製藥工業部會

4. 藥學部會

오후 6:00—Barrio Fiesta 가아든과아타

11月 19日(木)

9:00—部會계속

1. 藥學部會

2. 藥典部會

3. 交易部會

9:00—藥大學生討議

12:00—전체理事會

오후 2:00—部會계속

1. 藥事制度部會

2. 藥學教育部會

3. 製藥工業部會

4. 開設藥局部會

오후 7:00—懇親文化의 밤 行事

11月 20日(金)

9:00—總會

11:00—閉會式

오후 8:00—비올빈 藥學協會 50週年紀念宴

11月 21日(土)

視察旅行

大會場所는 開會式 및 親善行事를 계외하고는 거의 모다 마닐라灣에 面한 海岸도로「복사스路」에 위치하고 있는 사보이·피립핀 호텔을 사용하였다.

開會式은 U.N. 街에 자리잡고 있는 比美生命

保險會館에서 비올빈 마르코스 大統領 參席下에 壯嚴하게 열리었다. 各會員國의 代表가 各自의 國旗에 先導되어 入場하고 國旗가 壇上에 차례로 安置됨으로써 開式이 되었다. 마르코스 大統領은 致辭를 通하여 疾病退治 및 習慣性醫療品에 依한 藥害追放에 있어서 亞洲의 모든 藥師는 모름지기 聯合戰線을 펴고 총력기하자고 力說하여 깊은 共感을 자아내었다.

지난번 서울大會에 있어서 決議되고 2年間に 걸쳐서 推進되어온 繫留中인 事業들에 대한 成果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로운 豐盛한 成果를 견우어야 하겠다는 것이 開會式에 參席한 모든 會員들의 決意이기도 하였다. 推進中에 있는 10個 事業을 참고삼아 적으면 아래와 같다.

1. 藥品 및 食品의 添加物에 대한 <아세아地域委員會> 設置.
2. <汎亞洲醫藥品管理法> 制定을 위한 會員各國의 藥事法 연구검토.
3. 藥學振興, 藥學研究 및 教育에 關한 文獻 및 情報交換, 研究者의 交流 및 共同研究의 推進을 爲한 「아세아藥學教育組織委員會」의 設置.
4. 藥師의 資質向上을 爲하여 藥學敎科課程을 검토 改善하고 藥師資格取得에 필요한 國試 및 登錄의 要件을 強化한다.
5. <아세아藥典>을 制定하되 첫단계로 生藥 및 그 製劑로부터 着手한다.
6. <아세아病院藥師協會>의 設置.
7. 藥師인턴制度, 藥局의 適正配置, 醫藥分業에 關한 정보交換.
8. 傳來의 民間藥에 對한 <아세아研究센터>의 設立.
9. FAPA 會員國이 共同으로 利用할수 있는 <아세아醫藥品情報센터>의 設置.
10. 醫藥品市場情報 및 醫藥品 見本の 交換

#### 4. 藥學會議

아세아藥學會議는 1) 招請學者의 特別講演 2) 심포지움 3) 會員의 學術報告 및 4) 藥學部會의 討議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 1) 招請學者의 特別講演

첫번째 特講은 미국 캔서스 大學 교수이며 藥品物理化學분야의 개척자인 동시에 세계적 第1

人者인 Dr. Takeru Higuchi (Regents Distinguished Professor of Chemistry and Pharmacy University of Kansas at Lawrence)의 <Thermodynamics and Pharmaceutics>라는 演題로 이루어 졌다. 各種 劑型藥品의 體內吸收 및 輸送現象에 대하여 熱力學的 原理를 適用하여 새로운 接近方法을 示唆한 것으로 多大한 感銘을 주었다.

또 한분의 特講은 비올빈 藥學界가 낳은 비올빈 뿐만 아니라 國際의으로도 科學界 元老의 한 사람인 Dr. Joaquin Maranon (Prof. Emeritus of Univ of Santo Tomas, Technical Research Consultant both of The Centro Escolar Univ. and of National Science Development Board) 이 <The Imperatives and the Current Trends of Scientific Research and Product Development>라는 演題이었다. Dr. Maranon 은 비올빈 國立科學技術研究所(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初代所長도 지났을 뿐 아니라 80平生의 該博한 知識과 經驗을 土臺로 하여 效率的인 研究開發의 方途를 力說하였다.

##### 2) 심포지움

主題 : 公衆保健에 있어서의 藥師의 役割.

演者 : 1. 公衆保健의 問題點과 藥師

Mr. Emilio D. Espinosa(비올빈)

2. 製藥工業 및 公衆保健과 藥師

小島康平博士(日本)

3. 公衆保健에 關한 情報源으로서의 藥師 許 鈴博士(韓國)

近者 藥師의 公衆保健 일꾼으로서의 社會參與가 결실히 要望되고 있는 이때에 이와같은 심포지움이 열렸다는 것은 가장 타이밍한 일이며 많은 共感을 자아내어, 總會時 기왕에 存在하던 8個部會를 하나 더늘려 <公衆保健部會>를 追加하여 9個部會로 하는데 滿場一致의 結果를 나타낸 것이다. 藥의 올바른 傳播者로서의 藥師는 藥의 誤用, 濫用 防止의 第一線에 나서야 하고 豫防藥學, 衛生藥學을 통한 積極的인 社會參與야 말로 藥師의 使命이라는 것을 浮刻시키는데 있어서 이 심포지움은 큰 寄與를 하였다고 할수있겠다.

17日의 심포지움 뒤를 이어 아래의 特講이 追

加되었다. 演者인 Prof. Jose P.B. Gallardo 미국 Iowa 藥大는 FAPA의 創設會長인 동시에 <直前會長>의 資格으로 招請되어 왔다.

演題: Particulate Contamination of Sterile Parenterals and their Control.

### 3) 會員學術報告

18日 1日間으로 豫定되었던 스케줄을 하루延長하여 19일까지 續開할 정도로 報告論文數가 많았으며 藥化學 및 藥劑學분야의 論文도 있었으나 역시 大多數는 天然物인 生理活性物質에 關한 것이 찾아하고 生化學분야의 報告도 적지 않음을 볼때, 아세아 地域의 藥學研究의 趨勢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 4) 討議 및 決議事項

우선 會員各國의 情勢報告로써 (1) 藥學研究機關의 制度, 人的資源 (2) 研究費財源의 現況 (3) 產學協調의 實態에 關한 報告를 듣고, 研究情報 및 研究要員의 交流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決議事項으로서는

1. 研究要員의 交流를 實現시킨다.
2. 研究情報의 交換을 위한 센터를 設置한다.
3. 食藥品의 添加物에 關한 亞洲地域委員會는 存續시키며 小規模의 常任委를 設置를 하고 WHO 및 FAO 등 國聯機構의 協助를 받아 實踐的인 활동을 開始할것, 의 3個條項을 결의하였다.

次期 아세아藥學會議 議長 선출에서는 筆者가 再選되어 자동적으로 FAPA 본부 副會長도 겸하게 되었다.

會員의 學術報告에서 한가지 特記할 事項은 研究報告가 모두 專門的인 藥學研究者들에 의하여 發表되었는데 그중 우리나라會員 李明子氏에 의하여 발표된 「서울地方의 公害調査報告」(權肅杓氏와 共同研究)는 開設藥局 藥師라는 點에서 큰 意義가 있어 注目을 集中시켰다. 即 職業團體인 藥師會가 專門職을 통한 社會參與의 一端으로 一兩年前부터 實施하여온 公害調査는 亞洲各會員國으로 하여금 藥師會의 性格에 對한 重大한 示範케이스가 되었든 것이다.

### 5. 各 部 會

FAPA 機構에는 定款上 8個部가 設置되어 있다. 部會名과 本大會時의 議長名은 다음과 같다

1. Community Pharmacy Section (開設藥局部會) 尹相澈 (韓國)
2. Pharmaceutical Jurisprudence Section (藥事制度部會)  
Mr. James Man-Hoi Lau (홍콩)
3. Marketing Section (交易部會)  
Mr. Thaweesakdhi Suvagondha (태국)
4. Hospital Pharmacy Section (病院藥局部會)  
Mrs. Carmen Villamayor (비올빈)
5. Scientific Section (藥學部會)  
洪文和 (韓國)
6. Pharmacopoeia Section (藥典部會)  
Dr. Jesusa A. Concha (비올빈)
7. Industrial Pharmacy Section (製藥工業部會)  
prof. Rafael Hizon (비올빈)
8. Pharmaceutical Education Section (藥學教育部會)  
Dr. Ngyeen-Vinh-Nien (越南)

지금 各部會의 議題 및 토의상황을 評論할 紙面이 없어 決議事項의 主要項目만을 픽·업하여 보기로 한다.

1. 開設藥局部會에서는 대체로 從前事業을 答습하기로 하고 次期議長에 우리 尹相澈代表가 再選되었다.

2. 藥事制度部會: 會員各國의 輸出藥品에 對한 包裝表示規格을 定하여 회원단체를 통하여 各國 정부에 健議기로 하고 다시 아세아 藥品管理法 制定을 계속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3. 交易部會: 醫藥品 판매촉진을 위한 委員會 설치는 次期大會때 再論하기로하고 副議長에 우리의 李東石 대표를 선출하였다. 또 泰國 및 비올빈에 各 1名식의 演士를 초청하여 各自國의 <Detailing of Ethical Pharmaceutical Products>의 現況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4. 病院藥局部會: 病院藥局에 있어서의 藥品 情報活動 (D.I.)에 關한 심포지움을 열고, 日本, 濠洲, 및 비올빈의 演士가 各其 自國의 實情講演이 있었고 토의를 통하여 醫藥品 정보센터에 關한 위원회 設置를 加결하였다.

5. 藥學部會: 이미 藥學會議 論述에서 言及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兼, 아세아藥學會議議長)

6. 藥典部會 : 아세아藥品規格集에 收載한 生藥品目을 各國이 提出한 것에 대하여 토의.

7. 製藥工業部會 : 製藥技術에 관한 研究開發 보고와 아울러 研究 및 情報센터의 設置에 관하여 미국 록·펠러 재단 및 「웰컴」재단등이 아세아地域의 이와같은 사업전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直前 FAPA 會長인 Gallardo 교수의 발언에 힘입어 이센터 設立을 위한 常任委員會 設치를 可決하고 會員國에서 各 1 名씩의 委員를 내어 構成키로 하였다.

8. 藥學教育部會 : 藥學教育의 年限延長과 分科制 設치를 主題로하여 各國의 情勢보고 및 토의가 있었고, 藥師國家試驗制度에 의하여 藥學教育이 크게 左右되는 現況을 지적하는 동시에 會員各國間의 教科課程의 共通點을 分析해내고 앞으로 學位制度의 均一性에 노력할것, 또 各國의 製藥資源開發에 相互間 最大限의 편리를 도모하는 결의를 하였다.

### 6. 總 會

20日에 舉行된 總회에서 各部會에서 결의된 條件을 모두 通過시키고 1972年의 次期大會開催地를 泰國 曼谷, 1974年大會는 中華民國 台北에서 하기로 可決하였다.

會長團選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趙誠虎代表를 비롯한 여러분의 盡力이 奏効하여 우리가 원하든대로 圓滿하게 選出되었다.

會 長 : Paulino M. Taningco(비올빈, 留任)

副會長 : 閔寬植(韓國, 新)

“ A. Sarmardh(泰國, 新)

“ 孫雲燾(中國, 新)

“ 石館守三(日本, 新)

“ 洪文和(韓, 留任)

### 7. 結 語

昨年 서울에서 열렸던 世界 P.E.N. 大會에 참석했던 어느 노벨受賞作家가 「人生은 解逅로 이루어진다. 만나지 않고는 아무일도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지만 專門職, 科學世界에 있어서도 解逅라는 것이 커다란 意義를 지니는 것이다. 亞洲地域의 藥學者, 藥師가 같은 對話의 廣場에서 만날때 서로 理解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주고 하므로써 共同유대感과 같은 使命感에서 서로 結束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協力을 통한 發展을 이룩할수 있는 것이다.

마닐라에서 創立되어 6年을 경과하여 다시 歸鄉하여 總회를 開催한 이번 大會로써 FAPA의 意義와 發展은 더욱 確固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代表團이 모든 部會에서 활발한 活動을 전개하고 FAPA 機構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된것은 參加했던 회원들의 단결된 努力에도 起因하지만 무엇보다도 大韓民國의 國力이 그동안 눈부시게 伸張되어 아세아 國際社會에 있어서 發言權과 比重이 커졌다는데 모든것이 귀착된다고 할수 있겠다.

우리는 지난 1968年에 서울에서 大會를 맡어 치룬 經驗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매머드」國際大會를 成果있게 開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뼈저리게 周知하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비올빈 大會를 볼때 비록 颯風이 大會 끝머리 日程을 強打하기는 하였으나 큰 成功을 견우었다고 높이 讚辭를 보낼수 있다. 더욱이 南國特有的 風物과 多情多感하고 섬세한 主催國의 友情과 親切은 모든 참석자들의 가슴속에 「Asian Unity Through Pharmacy」를 實感있게 느끼게 하였다.